

불교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尋 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I. 설립배경

1997년 전남 순천의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던 16조사진영도(보물 제1043호)가 도난당한 사건을 계기로 사찰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설립하게 되었다.

불교계 내부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한편, 빈번한 사찰문화재의 도난에 따라 도난위험이 있는 불교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시 문화재관리국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불교 성보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기적 공조체제로 각 지역별로 '성보박물관'을 건립하였다.

II. 기대효과 및 기능

1. 기대효과

1) 사찰은 개방된 공간이므로 도난이나 화재 등 갖가지 재난과 훼손에 노출되어 있다. 박물관은 사찰에 소장된 수많은 문화재를 이러한 도난과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방화시설을 갖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찰들은 대부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찰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사찰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현장감 있게 문화재를 소개하여 국내외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불교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므로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보할 수 있다.

4)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시설과 문화활동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박물관에 문화센터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5) 지역사찰에 소장된 유물의 보수와 복원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6) 종단의 중앙박물관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행정을 지원하고 지역간 유물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기능

1) 전시관 기능

① 대부분의 사찰박물관은 상설전시를 하는 수준으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박물관들은 1년에 1회 정도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 일으키는 반향도 크다.

② 사찰박물관이라는 특성을 장점으로 하여 사찰 간 유물대여가 용이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양도 막대하므로 전시에 용이한 점이 있다.

또한 일반박물관에서 할 수 없는 사찰의 비장 유물들이 소개되는 사례도 있다.

③ 그간 행해진 몇 가지 예를 보면 전시수준도 수준급 이상이고 관람객 동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교육 기능

① 박물관대학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② 다양한 학술연구서와 도록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③ 사찰박물관 중에는 학술세미나나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곳도 있다.

3) 문화체험 기능

① 비교적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② 강좌내용은 불화그리기, 서각공예반, 수지침반, 고적답사반, 사진반, 꽃꽂이반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유물의 보존과 관리 기능

① 해당 본말사의 유물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② 조사한 유물 중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

Ⅲ. 설립현황 및 운영실태

1. 설립 진행

- 1) 현재 총 30개소 박물관 중 16개 박물관이 개관되어 운영 중이다.
- 2)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개관이 지연되는 박물관이 5개소이다.
 - 금산사 박물관은 수장시설 부족(8평)으로 별도의 수장고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 선운사 박물관은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아직 개관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백양사 박물관은 건물이 사찰과 떨어진 입구에 위치하므로 박물관 인근에 별도의 방범시설을 계획 중에 있다.
 - 용주사 박물관은 건물은 완공되어 있으나 운영예산이 없어 유물을 별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 마곡사 박물관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개관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3)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박물관이 9개소이다.

〈표1〉 조계종 사찰박물관 현황

2003. 4. 현재

박물관 명	규모	공사현황	개관 현황	박물관 등록	연구원 현황	비 고
통도사박물관	1,305평	94.5.7~99.4.11	개관	등록	5인	
수덕사박물관	92평	97.2.28~98.10.30	개관	등록	1인	수장고 확장(10평)공사
대흥사박물관	100평	97.5.1~98.10.30	개관	등록		수장고 없음
월정사박물관	208평	97.4.11~99.12.31	개관	등록	1인	
금산사박물관	161평	97.12.27~00.12.31	진행중		1인	개관 지연
동화사박물관	941평	99.11.17~00.12.31	개관			수장고 없음
도갑사박물관	93평	99.1.12~00.12.30	개관		1인	
육천사박물관	190평	97.6.30 ~99.12.31	개관			
표충사박물관	82평	88년	개관	등록	1인	최근에 개보수
범어사박물관	153평	99.12.20~01.12.31	개관		1인	최근 개관
해인사박물관	1,007평	97.9.14~01.12.31	개관		2인	
쌍계사박물관	232평	99.5.20~01.12.31	개관		1인	
흥국사박물관	142평	00.6.10~01.12.31	개관			최근 개관
은혜사박물관	158평	96년	보수중			최근 개보수 중
선운사박물관	164평	97.3.10 ~00.12.31	진행중			개관지연 일부 타용도 사용
용주사박물관	100평	97.8.19~01.12.30	진행중			개관 지연
마곡사박물관	115평	97.12.20~01.12.31	진행중			개관 지연
백양사박물관	131평	99.10.11~01.12.31	진행중			개관 지연
불국사박물관			설계중			
석굴암박물관			설계중			
봉정사박물관			설계중			
무위사박물관			설계중			
용화사박물관			설계중			
불갑사박물관			설계중			
기림사박물관			설계중			
청곡사박물관			설계중			
법주사박물관	지하122평		개관	등록		
부석사박물관	지상,지하1층		개관			
송광사박물관			개관	등록	1인	수장고 개보수
직지사박물관			개관	등록	2인	
총계		30 개소		8개소	17인	

2. 예산

1) 사찰박물관 설립할 때 설립 자금은 대개의 경우, 사찰의 자체 예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찰박물관의 운영은 해당 박물관의 관장과 사찰의 재정역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3) 대부분의 사찰박물관은 정확한 운영예산의 계획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건립된 관계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보다 큰 규모로 설립된 경우가 많다.

- 박물관예산 중 수입원이 되는 박물관 관람료는 지출경비의 5%정도에 그치며 나머지 경비는 사찰에서 계속적인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혹 박물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3. 소장 자료

1) 사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몇 개의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수적인 면에서나 가치적인 면에서 뛰어나다. 특히 유물점수가 아니라 일괄유물이 많으므로 건수로 계산했을 때는 그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2) 박물관이 있는 큰 사찰 외에 작은 사찰에 있는 유물 중에도 가치가 뛰어난 유물이 있는데, 보관장소가 여의치 않아 도난우려 등, 유물 보존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秘藏되는 유물이 많으므로 사찰박물관이 이런 유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 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

1) 박물관 기능에 필요한 설치시설(항온·항습시설 및 조명, 수장고, 전시실, 방법·방화시설)과 적정한 시설교체는 필수적 요건이지만 사찰의 운영예산 부족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지 못한 박물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 또한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전시와 교육, 유물의 정리 보존 등을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운영예산 부족으로 학예직연구원을 임용하지 못한 박물관이 많다.

〈표2〉 건립된 사찰박물관 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

구분	사찰명	박물관 등록	전문인력 현황	수장고 시설	항온·항습 시설	화재예방 시설	도난방지 시설
박물관	월정사	등록	2인	28평	○	○	○
	수덕사	등록	1인	15평	○	○	○
	해인사			60평	○	○	○
	금산사		1인	8평	○	○	○
	선운사			50평	○	○	○
	동화사			없음	○	○	○
	쌍계사		1인	10평	○	○	○
	백양사			20평		○	○
	통도사	등록	5인	120평	○	○	○
	직지사	등록	2인	8평	○	○	○
전시관	송광사	등록	3인	77.43평	○	○	○
	대흥사	등록				○	○
	법주사						○
	기림사						
	옥천사				○	○	○
	표충사	개보수중					
	부석사					○	○
도갑사	신청중	1인	30평	○	○	○	

IV. 과제와 대안

1. 문제점과 과제

1) 박물관 설립에 대한 불명확한 목적의식

일반 사립박물관의 경우 건립자가 박물관 설립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어서, 건립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되어 있으나, 사찰박물관은 상대적으로 건립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건립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한 현실임.

2)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운영예산 부족

사찰박물관은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유물의 수집·연구와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민족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공공적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재정이 일방적으로 사찰의 자력에만 맡겨져 있어 필연적으로 운영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 사찰측에서도 건립 이후 운영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마련하여 박물관건립을 추

진했어야 하나, 건립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과다한 운영비, 전문인력 부족 등)

3) 설비시설 미비

건립 초기단계부터 수장시설, 방범시설, 화재시설, 전시시설 등 구체적인 지침과 점점이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립이후에 박물관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 시설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예산부족으로 개관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유물창고로 머무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 유물 보유량은 많으나 적절한 보관시설의 미비로 오히려 유물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4) 통합적·유기적 관리기능 미비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방의 국립박물관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중앙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듯이 지방의 여러 불교박물관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며 유기적으로 관리할 중앙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 사찰박물관이 대체로 획일적인 전시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박물관의 특수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현재 서울의 조계사 내에 한국불교역사기념관 내에 불교중앙성보박물관(가칭)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2. 활성화 방안

1) 성보박물관의 공공성 활용과 지원

불교문화재는 단순히 한 종교의 유물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종교정책으로 불교문화재를 특정한 종교문화재로 한정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찰박물관은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① 사찰박물관 운영은 영리추구가 아닌 민족문화재 보존차원인 만큼 국가에서 운영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유물보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료 등 공조시설 운영비의 경우 대폭적인 할인혜택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 박물관의 경우 10% 할인이 전부다.

- 공공박물관과 비교해도 예산 자립도가 뒤지지 않는 사찰박물관도 몇 예가 있으나, 운영권과 예산을 전적으로 사찰에 일임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인 면에서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필요할 경우 시설설치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②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문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각 지역에 배분하여 지역의 문화평준화에 일조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박물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2) 문화재기관과 종단의 관리방안 모색

종단의 자체적인 점검뿐 아니라 유관기관(문화관광부 도서박물관과,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등)과 협의하여 성보박물관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운영실태 점검 및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박물관 건립은 즉흥적이거나 졸속적인 발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므로 설립단계에서부터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본 종단에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에 불교중앙박물관을 시설하여 문화재보존·전시기능 뿐 아니라 교육·연구기능까지 갖춰 지방 성보박물관에 대한 활성화와 지도기능을 수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3) 성보박물관의 전문성 강화

국가의 문화재 전문기구의 문화재조사나 자료수집과 학술활동의 부담을 성보박물관에 일정정도를 부담시켜 지역 내 문화재 조사나 보수를 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의 문화재보존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

① 국가에서 문화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성보박물관에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하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재보수처리자를 양성하여 교육해야 한다.

② 성보박물관의 학예연구원 채용 의무화 및 재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종단 내에서도 박물관장 및 학예연구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 타 국립박물관과 유물대여 등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유물 등 국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유물보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